

문화산책

한복 입은 팝음악 (케데헌과 오스카)

박성언

음악감독



“어린 시절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놀림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는 2026년 3월 15일(현지시간)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골든’의 주제가상 수상수감에서 작곡가 이재(EJAE)가 했던 말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고 주제가였던 ‘골든(Golden)’은 K팝 사상 최초로 주제가 (Best Original Song) 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골든’은 앞서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그래미시상식에서도 수상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 문화에서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여 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축하공연 또한 극 중 걸그룹 ‘헌트리스(HUNTR/X)’의 목소리 주인공인 이재(EJAE), 오드리 누나(Audrey Nuna), 레이 아미(Rei Ami)가 직접 라이브 무대를 꾸민데 판소리와 사물놀이, 북 연주 등 한국 전통 공연이 오프닝을 열었으며 한복을 입은 댄서들이 등장해 한국적 색채를 강조하는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고 관객에서 관람하는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K팝의

상징인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해 공연 내내 객석에 황금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K-컬처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케이팝(K-pop)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문화는 대한민국에서 기원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음악이다.

요즘은 단순히 음악 장르를 넘어 독특한 스타 육성 시스템과 퍼포먼스 그리고 중요한 팬덤 문화가 결합돼 하나의 문화 산업이자 특정한 스타일로 평가되고 있다.

음악적으로는 힙합, R&B, EDM, 록 등 서구의 다양한 장르를 한국적 감성으로 혼합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사운드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일명 ‘칼군무’라 불리는 정교하고 화려한 단체 안무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활동하는 그룹마다 고유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가 설정되어 음악을 듣는 문화에서 음악을 공유하고 뮤지션 그 자체가 문화의 대상으로 공유된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더욱이 AI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변화는 과거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작품들을 영화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티브이프로그램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세계최고의 영화시상식인 오스카에서도 당당하게 여러 상을 거머쥐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영화관을 가지 않고 집에서 티브이를 통해 방영되는 작품들을 영화관에서 관람하듯 즐기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청년들의 기동성이 있을 것이다. 다른 세대보다 훨씬 빨리 다양한 문화를 접하

고 받아들이며 이들은 문화를 바로바로 공유한다. SNS를 활용한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 전파되는 이들의 생각과 유행과 문화는 순식간에 여러 곳에 퍼져 나간다. 어쩌면 젊음이 가진 순발력이라고나 할까. 케이팝의 인기와 문화발전 전에 힘입어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형태의 예술 또한 잘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어쩌면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켜가는 사람을 발굴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오스카 시상식의 축하공연에서도 봤듯이 그 무대에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긍지를 느낀다. 전통이 없이 어찌 현재의 케이팝이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어렸을 때 댄스음악과 랩, 힙합이나 록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이 음악이 뭐가 좋냐며 폄하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어쩌면 문화는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내가 익숙한 것이나 경험해 본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오히려 낯선 것이나 조금은 자신에게 낯선 것이 나의 감각과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세포에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해서 틀리거나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어쩌면 나만의 선입견으로 내가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무한한 상상과 감각의 선물을 내 자신이 먼저 원천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케데헌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 순간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뮤지션들을 응원한다.

기고

고향을 잃은 시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강나루

문학평론가



하게 농축한다. 이를테면 긴장을 풀 수 있는 정신의 고향이다.

문제는 오늘의 삶이 이 장소성을 급속히 소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어디서나 비슷한 프랜차이즈, 잦은 이주를 강요하는 주거 현실, 속도만을 요구하는 이동 체계로 가득 찬 사회에서 정을 붙이고 삶을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편리한 공간 속에서 살지만, 정작 자기 존재를 붙들어 둘 자리 하나 갖지 못한다. 현대인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일찍이 공간과 장소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리학자 에드워드 켈프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삶의 자리”를 장소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장소의 상실은 곧 ‘나’의 상실로 이어진다. 내면은 저절로 생기 않는다. 인간의 내부는 고요, 체류, 기억, 반복, 사유를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오늘의 현대인은 쉬지 않고 반응하고 소비하느라 자신 안으로 침잠하여 경험과 추억을 내재화할 여유를 잃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수많은 타인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동안 나의 내면 또한 타인에게 맞추느라 자기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자신을 지치게 하는지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외부는 과잉인데 내부는 황폐하다.

문학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학은 사라져 가는 고향의 감각을 복원하고, 무너진 내면의 언어를 다시 세운다. 한 편의 소설과 시는 단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한 장소와 맺어지며 자기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보여준다. 좋은 문학은 언제나 인간을 어딘가에 다시 살게 한다. 그것은 잊힌 골목을 되살리고, 이름 없는 방을 기억의 장소로 바꾸며, 무심히 지나친 풍경 속에서 존재의 떨림을 발견하게 한다.

결국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더 넓은 공간이 아니라 더 깊은 장소다. 더 많은 연결이 아니라 더 두터운 머무름이다. 장소를 되찾는 일은 단순히 지역을 사랑하자는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실존의 노력이다. 사람이 한 장소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 내부와도 화해할 수 있다. 장소를 잃은 인간은 쉽게 흔들리지만, 자기 삶의 자리를 가진 인간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는 어쩌면 주거의 위기나 공동체의 위기 이전에, 장소감각의 위기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위기 한복판에서 현대인은 자신의 내부를 함께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정말 몰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과연 어디에 살고 있는가.

KIA타이거즈, 2026시즌 비상하길

취재수첩

송 하 중  
문화체육부 기자



KIA타이거즈가 KBO 시범경기를 소화하며 마지막 육성기러기에 집중하고 있다.

2024시즌 통합우승 이후 지난 시즌 고배를 마셨던 KIA는 올 시즌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앞서 KIA 선수단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 아미모시마 1차 캠프에서 체력 및 기술훈련을 했다. 이어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는 WBC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국내 팀과 총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혔다.

성공적으로 캠프를 마친 KIA의 현재 고민은 5선발과 테이볼체력 등 타선의 구성이다.

1~4선발은 제임스 네일-아담 윌러-이외리-양현종으로 구성됐다. 5선발 자리는 미완이다.

후보는 김태형과 황동하로 좁혀졌다. 지난해 125.1이닝을 책임졌던 김태형은 팔꿈치 부상으로 빠른 합류가 어렵다. 여기에 윤영철은 지난 시즌 말 토미존 수술로 올해 모습을 볼 수 없다.

김태형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기간 두 번의 등판에서 각각 2이닝 3실점(1자책), 2이닝 무실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황동하 역시 두 번의 경기에 출전해 2이닝 3실점(2자책), 3이닝 무실점을 했다.

시범경기에서는 김태형이 지난 13일 SSG전에서 선발로 등판해 3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비록 패전수투가 됐지만, 구위 자체는 좋았다. 황동하는 16일 NC전에서 4이닝 4실점을 했다. 4회까지는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지만, 5회에서 크게 흔들렸다. 황동하 또한 공의 위력은 좋았다. 다만 스트라이크를 2개까지 잘 잡은 뒤에 안타를 허용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불 배합에서 아쉬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두 선수의 우위를 가르기는 힘들다. 그러나 김태형이 5선발 자리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누가 5선발이 됐든 KIA 입장에서는 남은 선수가 톱릴리프 역할을 소화해줘야 한다. 그간의 경험치로 봤을 때 해당 포지션을 겪어봤던 황동하가 더 믿음직하다. 물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남은 일정에서 누가 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느냐의 싸움이다.

야수진에서는 박찬호와 최형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리드오프 박찬호를 대체할 유력한 선수는 데일이다. 2번 타수에서는 윤도현과 김호영이 점검 중이다. 다만 김호영의 시범경기 활약을 보면 2번 타수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19일 경기 전 기준 6경기 16타수 8안타 3타점 타율 0.500으로 꽤 좋은 컨디션 을 보이고 있다. 데일-김호영 이후에는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가 3~5번 타수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호 감독은 2~3가지 방향을 고려하며 시범경기 중반까지는 개막전 타순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KIA는 오는 24일까지 시범경기 일정을 소화한 뒤 28일 인천으로 올라가 SSG랜더스와 2026 KBO 정규리그 개막전에 돌입한다.

지난 2024시즌 우승의 영광을 누렸던 KIA가 올 시즌 비상하며 팬들에게 다시 기쁨을 선사하길 바란다.

사설

광주·전남 ‘청년 정착 정주여건’ 조성 절실

광주·전남 청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다시 돌아와도 열악한 정주여건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이 최근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는 지역 청년들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상당수가 짧은 체류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비수도권 정착 비율은 21.3%였다. 수도권 회귀 비율은 11.4%였는데 이들이 비수도권에 머문 기간은 평균 1.6년이었다고 한다. 지역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지가 아닌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경유지’기 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 정착 비율은 42.7%나 됐다.

연구원은 또 전국의 시군구를 일자리, 삶,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 등 4개 요소를 반영해 ‘청년친화지수’를 산출, 지역별 정주 여건을 비교했다.

이들 지수가 모두 양호한 곳을 ‘청년정착지’, 일자리는 많은데 나머지가 열악한 곳을 ‘청년 경유지’, 다른 인프라는 괜찮은데 일자리가 부족한 곳을 ‘청년정착 유보지’, 모든 것이 열악한 곳을 ‘청년 유출지’로 분류했는데 수도권 도시 상당수는 이들 4개 요소가 양호한 ‘청년정착지’에 포함됐다.

광주는 생활·문화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정착유보지’로 분류됐다. 일상생활 편의성이나 문화적 만족도는 그나마 높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이 부족한 정착을 망설이는 지역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각종 조사에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전남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상당수 지역이 일자리와 생활·문화 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청년 유출지’로 분류된 것이다.

지역사회 유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유입 자체도 제한적이어서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유입’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광주·전남의 청년정책을 더 광범위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복 담합’ 발본색원...제도 개선책 마련도

광주지역 교복 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100만원을 부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막고 수익을 더 내기 위해 학교의 교복구매 입찰 공고가 나오면 미리 연락,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를 정한 뒤 나머지 1~6개 업체를 둘러리리 내세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둘러리 업체들은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내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내는 수법을 써 낙찰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2021~2023학년도까지 교복구매 입찰 260건을 담합, 이중 226건을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구입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교복 구입 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각 사업자에게 100만~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2023년 1월 “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다”라고 신고해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현행 교복 구매방식인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업체들의 ‘잠짜미’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복은 2000년대까지 개인이 자율로 구매해 왔는데 특정 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비싼 가격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학교장이 입찰 공고를 게시하면 교복업체가 자격을 갖춰 입찰에 참여한 뒤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도입된지 1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정착되지 못한 채 업체들의 눈발이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강력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